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 우주 – 영원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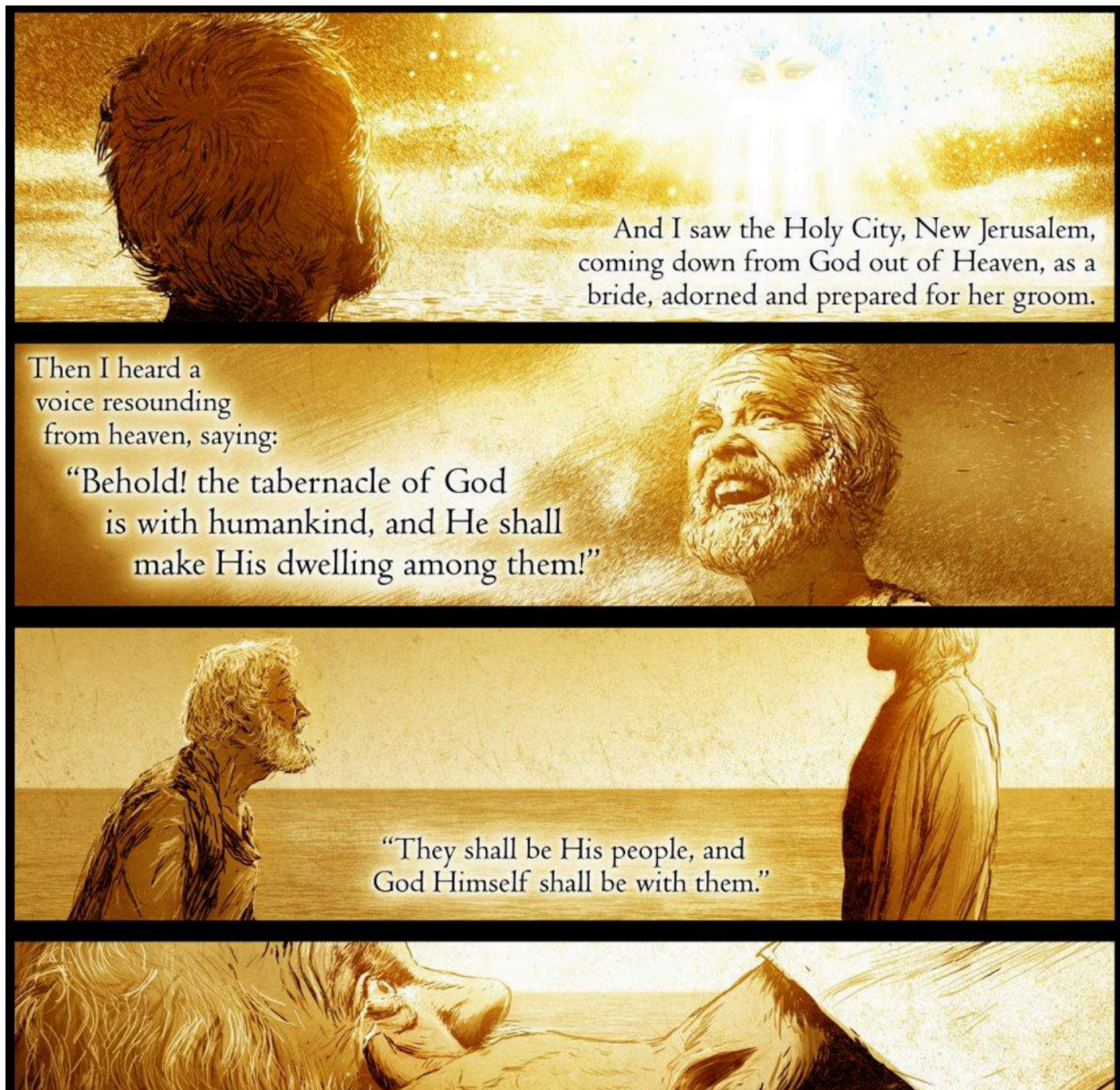
(그림: 메마른 옛 땅과 그 옆에 꽃이 피어나는 새 땅.)

슬라이드 2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하늘에 있지 않고, 새 땅에 있습니다. 새 땅은 물질로 된 세계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13.



슬라이드 3



(요한계시록 21:2-3에 따른 영어 글이 있는 그림 이야기: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한 음성이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7가지 측면

1. 지성소
2. 정치 – 하나님의 보좌
3. 성의 모든 주민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이름
4. 성 안에서의 삶과 일
5. 성의 건축 재료
6. 하나님의 얼굴

7. 감사와 찬양

슬라이드 5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어린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의 공동체이며 그들이 사는 곳입니다.



슬라이드 6

새 예루살렘의 크기

길이 2400km, 너비 2400km, 높이 2400km

보석으로 된 12개의 기초석(사도들)과 진주로 된 12개의 문(열두 지파). 이 본문의 모든 것은 상징이요 그림입니다!





슬라이드 7

땅, 곧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 지성소가 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부정하거나 죄스럽거나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Die Erde, der materielle und soziale Raum wird zum Allerheiligsten: Alles ist heilig, rein und vollkommen; nichts ist unrein, sündig oder schlecht. Weil Gott dort für immer bei den Menschen wohnt! Der Himmel ist Auf die Erde gekommen.

슬라이드 8

수정처럼 맑은 (붉은) 벽옥 같은: 하나님의 빛깔

요한계시록 4:3; 21:11, 18, 19.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 성곽처럼 빛나십니다. 스가랴 2:5.



슬라이드 9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신부, 낙원의 동산: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나무들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고, 길마다 그 옆으로 생명수 수로가 흐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열매와 생명수를 누립니다. 영원히.



(영어 글이 있는 그림: 물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솟아나 성의 큰길 한가운데로 흐릅니다.)